

제3권 (6단원 : 믿음의 사람들)

(제32과) 믿음으로 고난을 택한 모세

- 본문 : 히브리서 11:24-31
- 요절 :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6)
- 찬송 : 199장(새찬송가 265장), 217장(새찬송가 425장)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된 야곱의 후손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번성하여 드디어는 강성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역으로 괴롭히며 학대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여든 살게 두고 남자여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레위인의 집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용모가 어찌나 준수했던지 그의 부모는 위협을 무릅쓰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만든 상자에 아이를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마침 하숫가를 거닐던 바로의 공주가 아이가 담긴 갈 상자를 발견하고 하녀들을 시켜 건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속에 있는 잘생긴 사내 아이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궁중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익히며, 공주의 아들로써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성하면서 점차 자기 민족에 대한 의식이 싹텄고, 학정에 시달리는 자기 동족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가련한 히브리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곧 자기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는 의분을 참지 못하여 그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곧 발각이 되었으므로 그는 궁중에서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부귀가 보장된 애굽을 버리고 당시 바로의 종으로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히 11:24~27)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부귀 공명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고난의 길이나’에 대한 선택을 앞에 놓고 단연코 후자를 택함으로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믿음으로 고난을 택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온 모세는 거기서 장인의 양 떼를 돌보면서 덧없이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지난 젊은 시절은 한갓 이야깃거리가 되고 말았고, 이제 그는 나이 팔십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무리를 인도하여 호렘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는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았습니다. 그 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놀라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는 잊혀진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무능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사양하였지만 하나님은 강권하여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40년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그가 태어나 젊은 시절을 보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셨습니다.

애굽에 당도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바로가 그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홉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으나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박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재앙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인의 모든 장자와 생축의 첫 새끼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에 바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가 달려있는 일로서 모세는 믿음으로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도록 백성들에게 담대히 명하였습니다. 과연 그날 밤 바로의 궁에서부터 애굽 전역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곡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히 11:28)고 하였습니다.

한편,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죽음의 재앙이 미치지 못했듯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